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어 교육 논의의 성과와 과제

서 혁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들머리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이 있듯이, 한국인은 한국어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함께 생활하고 살아간다. 그러기에 한국어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의 근본 바탕이요 또한 희망이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우리의 근본과 바탕을 후세에 물려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써 나가는 희망이 싹 트게 된다.

1991년에 창간된 《새국어생활》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4년에 창간된 《국어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30년의 세월이다. 이 기간 동안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통해 국어 교육과 관련된 특집만 살펴보더라도 문법 교육, 국어 능력 시험, 한국인의 문해력(文解力), 표준 화법, 높임법, 호칭어, 국외 한국어 교육 등 굵직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통해 국어 교육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생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실질적인 국어

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국어 교육, 국어 능력, 국어 시험, 국어 생활 등과 관련된 특집 내용들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새국어생활》에서 더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새국어생활》의 국어 교육 논의의 성과

2.1.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 방향 논의

《새국어생활》과 《국어생활》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 관련 특집이다. 그 중에서도 바람직한 국어 교육(1988),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2004), 학교 문법 교육(1984, 2000), 한국인의 글쓰기(1999), 표준 화법(2003),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2005) 등이 눈에 띈다. 그 밖에도 국어 생활 예절(1987), 호칭어(1989), 경어법(1991), 한자 문화권의 한자 교육(1999) 등 많은 주제들이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2.1.1.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방향

《국어생활》 12호(1988)에서는 <바람직한 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1987년 말에 새로 개정된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과 기본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련 전문가들이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배경과 핵심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어과 교육의 특성으로 언어 사용 기능을 발달시키는 교과임

을 분명히 하면서, 국어과는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라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다(정준섭, 1988). 또한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말하기 듣기 교육 과정과 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 과정과 교육 현실과의 괴리 현상을 지적하고, 말하기 듣기 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사항은 말하기와 듣기 및 그 교육에 관한 정밀한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윤희원, 1988). 이는 여전히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독서 교육의 현주소를 위기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문식성(문해력)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97%에 이르는 문맹 퇴치율에 안주할 때가 아니며, 학습자들이 평생 독자로서 높은 수준의 문식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노명완, 1988)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보다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작문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전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길러 주어야 한다’(박영목, 1988)는 지적 역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문법 영역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언어 교육의 모색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어휘 조사와 문법의 각 분야별 공동 연구가 선행된 뒤에 학교별, 분야별 규범 문법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박영순, 1988)는 제언 역시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국가 기관에서도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국어생활》 14권 3호(2004)에서는 전술한 1988년의 논의에 이어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초·중등학교에서의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초등학교 말하기·듣기 교육과 관련한 논의(심영택, 2004)에서는 문해력(문식성,

literacy)과 대비가 되는 구어 사용 능력의 개념으로 ‘구통력(口通力, oracy)’을 제시하면서, 할러데이의 맥락 이론, 오스틴의 화행 이론, 바흐만의 사회적 대화 이론과 이해 이론을 중심으로 말하기·듣기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통력이 모든 교과 학습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과, 수업 맥락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등 읽기 교육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독해 지도와 독서 지도가 서로 선순환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성영, 2004). 즉,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독해) 능력은 최상위로 나타나지만, 읽기(독서)에 대한 선호도는 최하위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독해 지도와 독서 지도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관계를 위하여 독해 교육 쪽에서 점차 독서 지도를 향해 다가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읽기 교육에서도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지적이다.

<초등학교 쓰기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박태호, 2004)과 관련하여서는 ‘쓰기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 전략’에 초점을 둔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습자 중심 교육과 과정 중심 교육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장르별 특성을 도외시한 활동 중심의 쓰기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쓰기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이관규, 2004)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수자나 학습자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등학교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유수열, 2004)에서는 문학 교육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된 유산으로서의 문화’와 ‘기호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학이라는 한 영역의 명칭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른 언어 활동의 자료와 내용을 제공하는 과감한 투신을 통하여,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교육 과정 논의에서도 참조할만한 중요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2.1.2. 문법 교육

《새국어생활》 10권 2호(2000)에서는 학교 문법의 개념과 과거의 역사, 현재의 상황, 미래의 전망을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과 유사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강제력이 강하지는 않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임흥빈, 2000). 또한 개화기부터 현대까지의 문법 교육의 역사를 남한, 북한, 재외 교민으로 나누고, 통일 시대,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의 21세기 학교 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도 눈에 띈다(고영근, 2000).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국어 사용 기능 영역들과 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선택과 운용에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이관규, 2000)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문법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유효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통사론 중심의 문법 교육 대신에 국어를 알고 가꾸는 국어 지식 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 차원에서 지식 전달 중심의 문법 교육이 아니라 ‘탐구 학습법’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발견하고 이해해 나가는 사고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김광해, 2000)은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눈

에 된다. 즉 내국인용 학교 문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교육도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견해(민현식, 2000)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표준 문법의 체계화 필요성과 함께 규범성, 범용성,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권재일, 2000)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전통적인 통사론, 형태론을 포함하는 순수한 ‘문법’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화하되, 학교 문법의 체계, 기술 방법, 술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전술한 논의들은 학교 문법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어 교육 문법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학교 문법의 위상이나 구체적인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2.1.3. 표준 화법과 화법 교육

《새국어생활》 13권 1호(2003)에서는 표준 화법의 문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간에 따른 언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일반 대중들의 언어생활은 혼란스럽고 규범어 규정과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나, ‘분명한 오용은 관용과 구별해야 한다.’는 언급은 여전히 유념할 내용이다(강신항, 2003). 또한 1992년 확정된 표준 화법에서 호칭, 지칭어는 주로 3촌 이내의 관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준 화법을 보완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대중이 널리 쓰는 용법들에 대해 재검토와 수용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김세중, 2003)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 화법’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요구와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거

나, ‘자기’라는 부부간의 호칭어·지칭어의 배제 문제, 권위주의의 상징인 입존법을 종전과 같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전영우, 2003)도 눈에 띈다.

표준 화법 준수의 네 가지 조건으로 ‘상황 반영, 진실성, 쉽고 자연스러움, 실효성’을 제시한 점이나, 모든 교사는 모범적인 화법 교사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서 언론인의 표준 화법 구사 능력의 중요성, ‘방송·신문 언어 검증 제도’ 도입, 국민 계몽을 위한 화법 프로그램과 지면 확보, 교육 과정에 표준 화법 포함, 표준 화법 교본의 필요성을 강조(김희진, 2003)하고 있는 것도 의의가 크다. 이후 실제로 ‘표준 화법 해설서’가 출간된 바 있다. 아울러 대화방, 인터넷 게시판, 전자편지 언어 등을 중심으로 통신 화법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화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이정복, 2003).

이상으로 표준 화법 특징은 표준 화법의 필요성과 보완해야 할 점, 언어 예절 태도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고, 표준 화법의 범위를 인터넷 통신 공간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규범으로서의 표준 화법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며, 실제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화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언어 사용 장면에서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표준 화법 개정판’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2.1.4. 쓰기 교육

《새국어생활》 9권 4호(1999)에서는 <한국인의 글쓰기>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인의 글쓰기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비문과 오문으로 뒤범벅된

우리의 글쓰기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 장애 현상, 말하자면 일종의 실어증’이라는 지적(이익섭, 1999)은 깊이 되새겨볼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글쓰기 능력을 문화 국민의 척도로서 국가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글 분석(이현우, 1999)에서는 어휘, 나열과 접속 등의 측면에서 오류를 분석하고, 개인의 글쓰기 능력과 함께 교과서에 게재될 글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원진숙, 1999)에서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부적절한 어휘 사용, 외래어의 남용과 현학적인 문투, 주술 호응 문제, 필수 성분의 생략, 단락 의식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작문 교육의 방향을 ‘비관적 언어 사용 능력 신장’, ‘문제 해결 전략 중심의 과정적 글쓰기’, ‘독서와 토론을 통합한 글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문 규범, 단어 용법, 문장 오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허철구, 1999). 아울러 문장의 성분 사이의 의미 호응, 능동과 피동, 존대법을 중심으로 문법적인 문장 구성과 명료한 문장 쓰기, 텍스트의 결속 구조와 주제 구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잘 쓰려고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쓰기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장경희, 1999).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여러 계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한국인의 글쓰기 오류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인터넷 글쓰기’를 비롯한 ‘디지털 글쓰기’가 전 국민의 글쓰기 생활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새국어생활》 15권 4호(2005)에서는 대학 입시와 맞물려 교육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술·구술 교육이 불가피하게 대학 입시에 도입되었고, 현행 학교 교육은 여전히 학습

자들에게 논술·구술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우한용, 2005, 임철성,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구술 교육의 결핍의 답은 학교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논술과 구술의 기초 다지기>(이상태, 2005)에서는 바람직한 논술·구술 교육의 방향으로, 논술 능력의 구성요소(이해력, 사고력, 논리력, 문제학적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술·구술 교육을 전체 교과와 전체 학년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필수 교양 과목인 ‘사고와 표현’ 강좌를 사이버 강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논술 교육한 사례(성낙수, 2005)도 주목을 끈다.

22. 국어 능력과 국어 시험

국민의 자국어 능력이나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은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들을 개발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이는 토플이나 토익처럼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문화 파급 효과도 커서 엄청난 브랜드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와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국어생활》 12권 2호(2002)에서 다룬 <한국인의 국어 능력> 특집은 국어 능력 평가 실태와 외국의 자국어 능력 평가를 두루 소개하고 있어서 의의가 크다.

22.1. 국어 능력과 외국의 자국어 교육·평가 사례

국어 능력이란 ‘정보화 사회에서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정보 수행 능력’으로 정의된다(권영민,

2002). 아울러 기존에 각급 학교 현장이나 공공 기관, 민간 단체의 채용 시험에서 대부분 국어에 대한 일반 지식을 측정한 경우가 많아 언어의 활용 기능이나 여러 가지 언어 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우선 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목적과 효용에 맞춰 다양한 시험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난이도 조절, 문제 은행 구축 등이 요구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우리의 국어 사용 능력이 매우 비관적 수준이며, 국가적 차원의 표준적, 정기적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민현식, 2002). 이를 위해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을 광범위하게 수립하여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술될 2008년의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의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해 대학 신입생의 필수 과목의 하나로 ‘집중적으로 글쓰기(Intensive Writing)’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 작문 센터(대학 부설 문장 상담소, College Wri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지역 사회의 ‘읽고 쓰는 능력 배양 센터(Literacy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하광호, 2002). 프랑스 역시 자국어 교육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프랑스어 총위원회’, ‘프랑스어 최고 이사회’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 보존, 정비, 발전, 확산과 관련된 문제 및 외국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 수행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교육, 특히 언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육과 재미의 결합에 있는데,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은 물론 ‘숫자와 글자’, ‘황금사전’ 등 텔레비전을 통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단어 맞히기와 받아쓰기 시험을 들 수 있다(한선혜, 2002).

일본의 국어 정책, 공무원 채용 시험, 초·중등학교의 국어 교육과 국

어 관련 각종 시험에 대해 소개도 인상적이다. 일본에서는 2001년 ‘문화 예술 진흥 기본 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일본어 조사 연구 보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어에 대한 이해와 논문 작성을 통한 문장 표현력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민광준, 2002).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시험이 표준화되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조할 사항이다.

2.2.2. 국어 능력 시험

《새국어생활》 19권 3호(2009)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국인을 위한 국어 능력 시험인 ‘KBS한국어능력시험’과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중심으로 특징, 등급 체계, 평가 영역과 내용, 활용 등 그 현황을 소개하고, 문항 분석을 통해 두 시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김형배, 2009). 구체적으로 KBS한국어능력시험은 표준화된 문항 체계 개발 운영, 구어(口語)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듣기 영역의 설정, 듣기·말하기의 통합 평가 문항, 작문 과정 중심의 사고력 평가, 실용문 중심의 읽기 능력 평가와 복합 문식성 측정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박재현, 2009). 한편,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언어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개발되었고, 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발맞춘 인재 육성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배동준, 2009). 향후 더욱 우수한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를 높이고, 학습자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이도영, 2009).

《새국어생활》 20권 1호(2010)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국어 시험들이 국어 능력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대로 변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국어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 시험은 그 나름대로 대학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충실히 성취해 왔다. 여러 한계로 인해 국어 활동의 전 부문을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국어 활동의 다양한 부문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적 사고력을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종훈, 2010).

반면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분석과 관련하여, 5급에 비해 7·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형래, 2010). 무엇보다도 표준안이 마련되지 못해 출제자에 따라서 신뢰도, 타당도, 변별도에 커다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표준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법학 적성 시험’이나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도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최지현, 2010).

국어 능력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능력이며, 실제적 지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선발을 위한 결과 평가가 아닌 송환을 위한 과정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능력 평가는 국어 생활을 통해서 비형식적 평가와 과정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생활의 과정과 결과물을 수집 정리한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성영, 2010)는 지적도 흥미해 볼 필요가 있다.

2.2.3. 국민 기초 문해력

《새국어생활》 19권 2호(2009)에서는 문해력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해 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지칭하던 문해력(문식성, literacy)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존의 국내외 문해력 조사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미래 지향적인 문해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윤준채, 2009).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바탕으로 그 조사 추진 경위와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조사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총 5,212 가구 12,137명을 대상으로 한국궐립조사연구소와 함께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 국민의 비문해율은 1.67%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98.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19~79세) 중 약 62만 명이 비문해자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장 이해 능력이 부족한 반(半)문해자가 5.3%로서 약 200만 명에 달해 도합 약 260만 명의 국민들이 문해율 부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김순임, 2009).

서구에서 문해력의 개념은 ‘기초 문해, 기능(functional)문해, 비판 문해’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문해력의 수준이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 이상으로 평생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인구의 약 15%인 600만 명에 이르며, 다문화 가정의 증가함에 따라 성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해 교육 강화와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초등학교 학력 및 중학교 학력 인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인종, 2009). 아울러 여성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해 교육 방안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전은경, 2009).

2.3.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에 한국어 교육이 국내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국어생활》 제18권 3호(2008)에서는 <국의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을 특집으로 하여,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국어의 세계화 논의와 관련하여 일방적 전파가 아닌 문화 호혜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이상규, 2008)는 지적은 되새겨볼 만하다. 특히 전 세계 27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 학교의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재의 표준화, 문법 모형 개발, 교재 및 부교재의 개발과 보급, 한국어 교원의 교육과 연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의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이상규, 2008).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 이중언어 교육 병행, 한글 학교의 표준 교육 과정 구안, 현지에 적합한 학습 자료 개발, 유능한 교사 확보, 다양한 교수법 활용, 언어 문화의 통합 교육 지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박갑수, 2008).

한국어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세종학당’이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김재훈, 2008)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종학당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즉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2단계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에서 1,200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755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1조 3,250억 원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편익 비율은 191.2에 이른다. 간단히 말해서 세종학당에 투입될 비용에 비해서, 그로 인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190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외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학당에서 지향하는 ‘문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 시 학습 초기부터 자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목표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학습 내용과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백봉자, 2008). 즉, 학습자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와 한국 사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이를 언어와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언어 사용 맥락 및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학당을 한국 문화의 센터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교육 과정의 수립과 다양한 유형의 교재 개발,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의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세종학당을 통해 현지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원 양성을 병행하는 방안(손중권, 2008)도 제안되었다.

<한국어 교원 수급 방향>(송향근, 2008)과 관련하여서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 수를 계산해 보면 총 수요가 2,991명, 총 공급이 3,529명이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에게만 부여하고 그 외의 비전공자에게는 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여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기존에 자격증 발급 시 요구했던 교육 경력 시수 800시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0시간으로 줄이자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훈련시켜 새로이

이주해 오는 출신 국가의 여성을 교육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새국어생활》 19권 2호(2009)에서는 한국어 세계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한국 언어 문화 및 현지 문화의 상호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견인해 나갈 세종학당의 구체적 방향과 국외 한국어 교육 방향, 교원 수급 방향, 교재 개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폭 넓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다만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편익 분석,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나가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과제와 전망

《국어생활》,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다루어진 국어 교육, 국어 능력과 국어 시험, 한국어 교육 등의 논의는 우리 국어 생활에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와 국어 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새국어생활》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의 문해력(문식성), 국어 생활, 한국어 교육 등과 관련되는 새로운 사회적 의제의 발굴과 여론 형성의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하여 국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생애 주기 국어 생활의 특징과 발달 및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 문식성 조사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국어 시험의 내용 체계 표준안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안이나 표준안이 없이 출제자에 따라 조

변석개하는 타당도와 변별도가 떨어지는 평가 문항으로는 국가 공무원 선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국민 문해력 측정을 체계화·정기화하고, 인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어 능력 시험들을 통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종합적인 이해·표현 능력 측정 및 인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최고급 단계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면모를 살려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매체 환경에 따른 국민 언어 생활의 특징과 실태 조사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의 확장과 그 활용은 국민 언어 생활은 물론 국어 교육의 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어 순화 운동과 고유어 소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어 교육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일반 국민들의 국어 사랑 운동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황금사전’과 같이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우리말 겨루기나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적 국어 사용 진흥 노력이 필요하며, 교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국어 교육, 컴퓨터 공학, 전산 언어학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전산 언어학과 컴퓨터 공학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온톨로지(ontology) 구축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어 온톨로지의 구축은 컴퓨터에 기반한 어휘 개념망의 확충으로서 한국어의 전산 처리와 인공지능 개발에 중요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이해와 표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학제적 연구와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어의 세계화와 브랜드 전략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다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 논의도 더욱 심화되어야 하겠으나, 한국 언어 문화가 통합된 한국어 교육과 국외 홍보 전략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브랜드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일반인들이 더욱 쉽고 흥미롭게 《새국어생활》을 읽을 수 있도록 내용과 편집에서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국어생활》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로 참고한 자료는 《새국어생활》, 《국어생활》의 아래 특집들이다. 83면에 이르는 필자별 참고 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새국어생활》, 제20권 1호, 2010년 봄, <특집: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

《새국어생활》, 제19권 3호, 2009년 가을, <특집: 국어 능력 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

《새국어생활》, 제19권 2호, 2009년 여름, <특집: 국민의 문해력>

《새국어생활》, 제18권 3호, 2008년 가을, <특집: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새국어생활》, 제15권 4호, 2005년 겨울, <특집: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새국어생활》, 제14권 3호, 2004년 가을, <특집: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제13권 1호, 2003년 봄, <특집: 표준 화법>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2002년 여름, <특집: 한국인의 국어 능력>

력>

《새국어생활》, 제10권 2호, 2000년 여름, <특집: 학교 문법>

《새국어생활》, 제9권 4호, 1999년 겨울, <특집: 한국인의 글쓰기>

《새국어생활》, 제9권 2호, 1999년 여름, <특집: 한자 문화권의 한자
교육>

《새국어생활》, 제1권 3호, 1991년 가을, <특집: 국어의 경어법>

《국어생활》, 19호, 1989년 겨울, <특집: 호칭어>

《국어생활》, 10호, 1987년 가을, <특집: 국어 생활의 예절>

《국어생활》, 12호, 1988년 봄, <특집: 바람직한 국어 교육>

《국어생활》, 창간호, 1984년 10월, <특집: 고등학교 국어 문법>

